

# K-배터리 3사, '초고밀도·안전·ESS' 글로벌 경쟁력 입증

## '인터배터리 어워즈' 석권

소재 등 12개 혁신기술·제품 선정

LG엔솔 LFP 전력망 ESS 안전강화  
삼성SDI 700Wh/L 각형 배터리 구현  
SK온 '온 벤트' 열폭주 가스배출 제어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을 앞두고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첨단 기술력으로 주목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리튬인산철(LFP) 기반 전력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삼성SDI는 700Wh/L급 고에너지 각형 배터리, SK온은 각형 온 벤트 셀로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6에서 각각 수상하며 K-배터리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줬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6'을 열고 배터리·소재·부품·장비 4개 부문에서 총 12개 제품·기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25개 기업이 42개 품목을 출품해 전년(24개사 32개 품목)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JF2 DC LINK 5.0 전력망용 ESS'는 화학적 안전성이 높은 LFP 기반 조성과 올인원(All-in-One) 컨테이너 구조를 적용한 전력망용 ESS다. 충전 상태 자동 보정 기술(SOC Calibration Free)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반영한 고성능 단열 설계를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6' 수상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6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배터리협회

통해 전력 인프라용 ESS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 ESS cell 개발담당 김기웅 상무는 "ESS는 EV에서 출발해 이제 초기 단계로 도약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제품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배터리 슈퍼사이클을 이끌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SDI의 '700Wh/L 고에너지 각형 배터리'는 각형 셀 최초로 700Wh/L 초고에너지밀도와 4000W급 출력을 구현한 차세대 배터리다. 부품 저장 최소화 설계와 신규 소재 구조 적용, 열 확산 방지 기술인 'NO TP'(No Thermal Propagation) 기술을 통해 고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이 높

게 평가됐다.

SK온의 '각형 온 벤트 셀'은 각형 배터리에서 벤트 위치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구조 혁신 기술이다. 열폭주 발생 시 가스를 제어된 방향으로 배출하도록 설계해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배터리 시스템 설계 유연성을 높인 점이 반영됐다.

소재 부문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공급망 자립 LFP 직접합성법', LG화학의 '열폭주 지연 열가소성 수지(Thermoplastics)', 에코앤드림의 '차세대 90+ 하이니켈 전구체', 솔루션소재의 'ESAR 10마이크로미터 포일 스테인리스'가 선정됐다.

부품 부문에서는 에프디씨의 'ESS용 폭연방산구'가 선정됐으며 장비 부문에서는 리드 인텔리전트 장비(Lead Intel

ligent Equipment)의 '건식 전극 믹싱 및 코팅 시스템', 자비스의 '배터리 고속 CT 인라인 검사기', 티더블유의 '초고속(0.2sec) 복합(노칭+스택) 설비'가 각각 수상했다.

박대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6은 초고에너지밀도·안전 기술과 ESS, LFP 기술 자립, 차세대 공정 등 배터리 혁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인터배터리가 AI·로봇 등 첨단 기술과 ESS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성장공유형 방식'

### 정책자금 본격 공급

기업당 최대 20억 한도로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성장공유형 방식의 정책자금 접수를 4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3일 중진공에 따르면 '성장공유형 대출'은 성장가치가 우수하고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 S), 전환우선주(CPS)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로 운영한다.

올해 투융자 지원규모는 ▲성장공유형 대출 600억원 ▲투자조건부 융자 500억원으로 총 1100억원이다.

중진공은 특히 벤처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투자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10시부터 지원을 시작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대리대출 방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를 도입하는 등 자금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거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되는 '직접대출' 방식으로 바꿨다.

/김승호 기자

## LIG넥스원

### 상반기 신입·경력 공채

미사일·AI 등 전 분야 채용

LIG넥스원은 오는 18일까지 상반기 신입·경력사원 공개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미사일 시스템, 전자기전, 레이더, 해양, 무인·로봇, 광정보 융합, 위성, 인공지능(AI) 등 LIG넥스원의 주요 사업 분야 전반에서 인재를 선발한다.

모집 직군은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기계 부문 연구개발(R&D)을 비롯해 국내외 사업관리, 품질관리, 경영지원 등이다.

전형은 온라인 AI 역량검사와 서류전형 이후 SW 코딩테스트(SW 분야), 분야별 실무진 면접, 리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 CJ대한통운, 훈련용 전투기 인니 운송... '방산물류' 성공

## 한국항공우주산업 제작 T-50i 2대 방산물류 특화 '로드 서베이' 실행

CJ대한통운이 고난도 방산물자 운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며 국가 전략물류 분야의 핵심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훈련용 전투기 T-50i 2대를 인도네시아로 운송하는 방산물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사천에서 출고된 훈련기는 총 30톤 규모로 국내 내륙운송과 항공운송, 현지 통관 및 운송 등 복잡한 물류과



CJ대한통운이 인천공항에서 인도네시아로 보낼 T-50i 훈련용 전투기의 동체를 화물기에 적재하고 있다. 동체, 날개, 수직꼬리날개, 엔진 등 4개의 핵심부품으로 분해된 상태에서 운송된 후 현지에서 재조립했다. /CJ대한통운

정을 거쳐 인도네시아 공군기지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 훈련기는 대형 동체 구조와 복잡한 전자 장비를 갖춰 고도의

방산물류 역량이 요구된다. 특히 기체의 전후 하중 분포와 무게중심이 조금만 달라져도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 운송 전 과정에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CJ대한통운은 방산물류에 특화된 '로드 서베이(Road Survey)'를 실행해 운송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했다. 국내와 현지 내륙운송 과정에는 에어서스펜션이 장착된 무진동 차량이 투입됐다. 경남 사천에서 인천공항까지 약 530km, 인도네시아 주안다 공항에서 공군기지가 약 200km에 이르는 장거리 운송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완수했다.

항공 운항경로 설계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CJ대한통운은 방산물류 분야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국가별 통과 허가 가능성을 분석해 4개국을 통과하는 최적 경로를 설계하여 안정적인 운송을 진행했다.

CJ대한통운 장영호 글로벌1본부장은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E2E(End-to-End) 물류 체계'로 고난도 방산물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며 "한국의 우수한 항공·방산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물류파트너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서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기보, 벤처 3만8500곳 대상 'AX혁신지수' 자가진단

전략·의지 등 4개 영역·12개 지표 기업 AI 전환 성숙도 5단계 진단

기술보증기금이 전국 3만8500여개 벤처기업들 스스로 인공지능(AI) 전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협회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AX혁신지수' 자가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보가 개발한 AX혁신지수는 ▲전략 및 의지 ▲자원 및 조직 ▲기술 및 데이터 ▲활용 및 성과 등 4개 영역, 12개

세부 지표로 구성했다.

대내외 전문가의 견문과 계층분석을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했으며 진단 결과는 종합점수와 항목별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AI 전환 성숙도를 ▲기초 ▲준비 ▲구축 ▲확산 ▲선도 등 5단계로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AX 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벤처협회는 전국 3만8500여 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내와 홍보를 담당하

다. 기보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한 웹 기반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기업에게 진단 결과를 제공해 향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보이재필 이사는 "중소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주체로, AI 기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기보는 정부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AX 문화 확산과 벤처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